

2020년도 문화청 위탁사업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사업 '토시마구 일본어 학습환경과 정보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속보판>

2021년 3월 6일 간행

토시마구 정책경영부 기획과
가쿠슈인대학 국제센터

이번에 토시마구와 가쿠슈인대학은 토시마구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의 토시마구는 어느 정도 일본어 학습을 위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토시마구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분들께 각종의 정보가 잘 도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어를 배우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책자는 조사 결과의 일부를 널리,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번역판과 함께 토시마구 및 가쿠슈인대학 국제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분석결과는 2021년 상반기에 정리되었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 실시 주체: 토시마구, 가쿠슈인대학
대상: 토시마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외국적주민
방법: 웹 설문지(의뢰장 우송)
언어: 일본어, 쉬운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간체자, 번체자), 베트남어, 네팔어, 미얀마어로 실시
조사기간: 2020년 10월 13일~11월 1일

내용

- 1) 일본어학습에 관한 항목: 학습 상황, 일본어 능력, 일본어 사용상황 등 (문화청'일본어교육에 관한 조사의 공동이용항목'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
- 2) 정보교류에 관한 항목: 정보·시설의 활용상황 등
- 3) 속성
회수수: 1,348건 (발송수 9,630건), 유효회답수 1,179건

1. 회답자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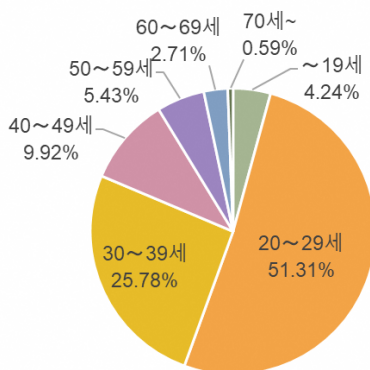
1-1. 출신국·지역

중국	베트남	한국·조선	대만	네팔	미얀마	필리핀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그 외	합계(인)
582	120	102	76	59	53	22	22	15	10	118	1,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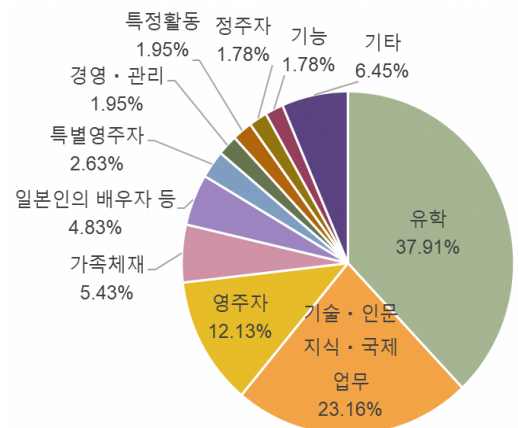
1-2. 성별

남성 531명(45.04%), 여성 627명(53.18%), 답하지 않음 19명(1.61%), 기타 2명(0.17%) 이고, 토시마 외국적 구민의 성별 내역보다도 여성의 수가 조금 많습니다.

1-3. 연령



1-4. 재류자격



1-5. 일본재주기간

일본재주기간	인수(%)
1. 6개월 미만	4(0.34%)
2.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66(5.60%)
3. 1년 이상~3년 미만	403(34.18%)
4. 3년 이상~5년 미만	217(18.41%)
5. 5년 이상~10년 미만	211(17.90%)
6. 10년 이상~15년 미만	122(10.35%)
7. 15년 이상	156(13.23%)

<연락처>

〒171-8588 도쿄도 토시마구 메지로 1-5-1
가쿠슈인대학 국제센터
E-mail: nnet.toshima.jimu@gmail.com
Tel: 03-5992-1024

2. 일본어 학습 · 일본어 능력 · 일본어 사용에 대하여

조사는 8개국어 9종류의 조사표를 편하신 언어로 답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유효응답 1,179건 중, '일본어판' 응답은 310건 있었습니다. '2'에 대해서는 일본어 학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응답 경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어판'과 '일본어판 이외'의 응답자를 나누어 집계했습니다.

2-1. 일본어를 배운적이 있는지

	일본어판 이외	일본어판	전체응답
1.있다	778(89.53%)	287(92.58%)	1,065(90.33%)
2.없다	91(10.47%)	23(7.42%)	114(9.67%)

2-2. 현재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지

	일본어판 이외	일본어판	전체응답
1.배우고 있다	507(58.34%)	115(37.10%)	622(52.76%)
2.배우고 있지 않다	362(41.66%)	195(62.90%)	557(47.24%)

2-3. 일본어 학습의 이유 · 목적 (복수응답 가능)

이유·목적	일본어판 이외	일본어판	전체응답
1.일본에서 생활 함에 필요하여	401(79.09%)	91(79.13%)	492(79.10%)
2.본인과의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226(44.58%)	55(47.83%)	281(45.18%)
3.업무상 필요하여	236(46.55%)	55(47.83%)	291(46.78%)
4.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해	213(42.01%)	45(39.13%)	258(41.48%)
5.진학, 또는 학업을 위해	271(53.45%)	61(53.04%)	332(53.38%)
6.그 외	35(6.90%)	16(13.91%)	51(8.20%)

전체 응답자의 90%가 일본어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의 약 절반, "일본어판 이외"의 응답자의 약 60%가 현재 학습중입니다. 학습의 이유·목적은 "일본에서 생활 함에 필요하여"가 약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 일본어를 배우지 않고 있는 이유 (복수응답 가능)

이유	일본어판 이외	일본어판	전체응답
1.일본어가 제1언어(모어)다	2(0.55%)	38(19.49%)	40(7.18%)
2.이미 충분히 일본어를 알고 있다	①155(42.82%)	112(57.44%)	267(47.94%)
3.일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9(2.49%)	2(1.03%)	11(1.97%)
4.일본어 외의 언어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26(7.18%)	3(1.54%)	29(5.21%)
5.육아 때문에 일본어를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다	35(9.67%)	6(3.08%)	41(7.36%)
6.일 때문에 일본어를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②129(35.64%)	40(20.51%)	169(30.34%)
7.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	64(17.68%)	11(5.64%)	75(13.46%)
8.일본어학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	③72(19.89%)	12(6.15%)	84(15.08%)
9.일본어학원과 시간이 맞지 않는다	42(11.60%)	7(3.59%)	49(8.80%)
10.일본어학원이 너무 멀어 다닐 수가 없다	14(3.87%)	1(0.51%)	15(2.69%)
11.일본어학원의 교수법, 내용 또는 수준이 맞지 않는다	19(5.25%)	7(3.59%)	26(4.67%)
12.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④68(18.78%)	11(5.64%)	79(14.18%)
13.적합한 일본어 학습용 교재가 없다	27(7.46%)	4(2.05%)	31(5.57%)
14.일본어 학습을 가족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	0(0.00%)	1(0.51%)	1(0.18%)
15.배울 의욕이 나지 않는다	21(5.80%)	8(4.10%)	29(5.21%)
16.그 외	20(5.52%)	12(6.15%)	32(5.75%)

현재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본어판 이외"의 응답자 중, "충분히 일본어를 알고 있다"의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일 때문에 일본어를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일본어학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입니다. 시간이 없다, 배우기 위한 정보가 없다, 라고 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지

현재 일본어를 배우고 있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일본어판 이외"에서는 70%의 사람이 학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어판 이외	일본어판	전체응답
1.배우고 싶다	254(70.17%)	80(41.03%)	334(59.96%)
2.배우고 싶지 않다	108(29.83%)	115(58.97%)	223(40.04%)

2-6. 일본어 학습 방법 (복수응답 가능)

방법	일본어판 이외	일본어판	전체응답
1.독학 (교과서, TV방송 등)	275(54.24%)	67(57.39%)	341(54.82%)
2.독학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	282(55.62%)	61(53.04%)	343(55.14%)
3.통신교육으로 배우고 있다	35(6.90%)	8(6.96%)	43(6.91%)
4.무료 일본어 교실에서 배우고 있다	27(5.33%)	5(4.35%)	32(5.14%)
5.유료 일본어교실에서 배우고 있다	47(9.27%)	7(6.09%)	54(8.68%)
6.일본어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215(42.41%)	38(33.04%)	253(40.68%)
7.가족에게 배우고 있다	10(1.97%)	10(8.70%)	20(3.22%)
8.직장에서 배우고 있다	82(16.17%)	27(23.48%)	109(17.52%)
9.친구 (일본인) 에게 배우고 있다	91(17.95%)	32(27.83%)	123(19.77%)
10.친구 (일본인 외) 에게 배우고 있다	44(8.68%)	7(6.09%)	51(8.20%)
11.주변의 대화를 듣고 익히고 있다	168(33.14%)	57(49.57%)	225(36.17%)
12.그 외	45(8.88%)	9(7.83%)	54(8.68%)

현재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인수의 약 40%는 일본어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편, 무료 일본어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인수는 약 5%입니다. "독학"이나 "주변의 대화를 듣고 익히고 있다"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 현재의 일본어 능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해서 1~5의 선택사항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판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기”, “읽기”의 결과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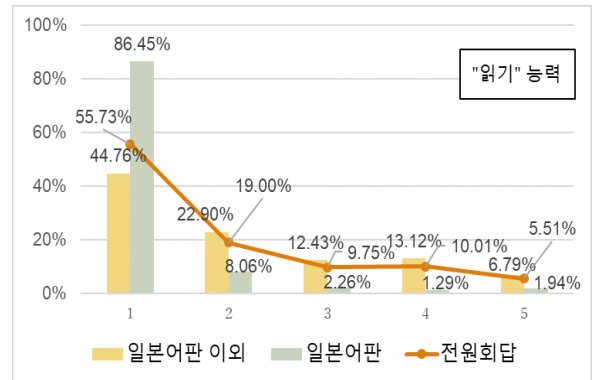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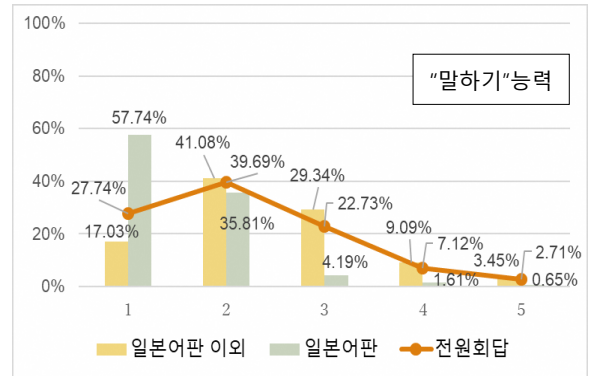
(1) “말하기”능력

1.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문제없이 말할 수 있다
2.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대강 말할 수 있다
3. 간단한 일상회화는 가능하다
4. 자기소개, 정해진 인사, 단어 정도 라면 말할 수 있다
5. 거의 말할 수 없다

(2) “읽기”능력

1. 관공서나 학교, 직장의 공지사항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2. 관공서나 학교, 직장의 공지사항을 읽고 조금 이해할 수 있다
3. 신문, 잡지의 광고나 전단지, 역의 시간표와 안내판을 보고 원하는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
4. 삽화가 있는 간단한 지시사항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요리를 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5. 거의 읽을 수 없다

“일본어판 이외”의 응답자가 ‘일본어판’ 응답자보다 일본어 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기”능력에 있어서 “일본어판 이외” 응답자 가운데 약 40%가 “간단한 일상회화” 또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레벨이었습니다. “읽기”능력에 있어서 “거의 읽을 수 없다”, “삽화가 있는 간단한 지시사항 등을 알 수 있다”를 합치면 약 20%입니다.



2-8. 일본어를 사용하는 장면(복수회답 가능)

장면	일본어판 이외	일본어판	전체응답
1. 일본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음	8(0.92%)	3(0.97%)	11(0.93%)
2.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	324(37.28%)	178(57.42%)	502(42.58%)
3.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389(44.76%)	207(66.77%)	596(50.55%)
4. 일상생활 또는 장보기를 할 때	752(86.54%)	286(92.26%)	1,038(88.04%)
5. 관공서에서 일을 볼 때	629(72.38%)	268(86.45%)	897(76.08%)
6. 우체국·은행에서 일을 볼 때	622(71.58%)	269(86.77%)	891(75.57%)
7. 일자리를 찾을 때	379(43.61%)	158(50.97%)	537(45.55%)
8. 업무에서	526(60.53%)	230(74.19%)	756(64.12%)
9.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401(46.14%)	117(37.74%)	518(43.94%)
10. 병에 걸렸을 때	387(44.53%)	223(71.94%)	610(51.74%)
11.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	128(14.73%)	55(17.74%)	183(15.52%)
12. 그 외	117(13.46%)	58(18.71%)	175(14.84%)

90% 가까이가 “일상생활 또는 장보기를 할 때”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판 이외” 응답자는 대부분의 장면에 대해 「일본어판」 응답자보다 선택률이 낮았고 “일본어판 이외”를 선택한 응답자가 일본어를 사용하는 장면은 “일본어판” 응답자보다 전체적으로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 일본어사용에 있어서 곤란한 때(복수회답 가능)

일본어로 곤란했을 때	일본어판 이외	일본어판	전체회답
1. 곤란했던 적은 없다	160(18.41%)	194(62.58%)	354(30.03%)
2.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	137(15.77%)	15(4.84%)	152(12.89%)
3. 지하철이나 버스에 탈 때	63(7.25%)	6(1.94%)	69(5.85%)
4. 일상생활 또는 장보기를 할 때	181(20.83%)	15(4.84%)	196(16.62%)
5. 관공서에서 일을 볼 때	365(42.00%)	22(7.10%)	387(32.82%)
6. 우체국·은행에서 일을 볼 때	297(34.18%)	20(6.45%)	317(26.89%)
7. 일자리를 찾을 때	220(25.32%)	23(7.42%)	243(20.61%)
8. 업무에서	259(29.80%)	42(13.55%)	301(25.53%)
9. 병에 걸렸을 때	269(30.96%)	45(14.52%)	314(26.63%)
10.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	68(7.83%)	4(1.29%)	72(6.11%)
11. 그 외	104(11.97%)	25(8.06%)	129(10.94%)

“일본어판 이외” 회답자의 80% 이상이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답하여 일본어 학습의 필요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본어 사용이 많은 장면으로는 “관공서에서 일을 볼 때”나 “우체국·은행에서 일을 볼 때”등인 것이 밝혀졌고, 병에 걸렸을 때나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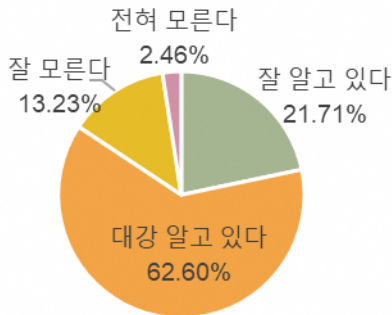
2-10.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복수응답 가능)

언어	1.일본어	2.중국어	3.한국·조선어	4.영 어	5.필리핀어	6.베트남어	7.네팔어	8.미얀마어	9.태국어	10.그 외
일본어판 이외	678(78.02%)	477(54.89%)	74(8.52%)	516(59.38%)	22(2.53%)	107(12.31%)	55(6.33%)	45(5.18%)	4(0.46%)	81(9.32%)
일본어판	300(96.77%)	210(67.74%)	56(18.06%)	213(68.71%)	1(0.32%)	5(1.61%)	4(1.29%)	3(0.97%)	5(1.61%)	43(13.87%)
전체회답	987(83.72%)	687(58.27%)	130(11.03%)	729(61.83%)	23(1.95%)	112(9.50%)	59(5.00%)	48(4.07%)	9(0.76%)	124(10.52%)

3. 토시마구의 생활에 대하여

3-1. 정보의 유무

①재해시의 행동에 대하여



②중대재해시의 피난처에 대하여

	일본어판 이외	일본어판	전체회답
1.알고 있다	446(51.32%)	205(66.13%)	651(55.22%)
2.모른다	423(48.68%)	105(33.87%)	528(44.78%)

중대재해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와 “대략 알고 있다”를 합하면 80%를 넘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모른다”라고 답한 일본어판 이외의 응답자는 약 반수를 차지해 일본어판 응답자의 비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3-2. 토시마구 홈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의 이용했던 정보

위	이용했던 정보	응답수
1	주소·호적·세금에 관한 수속	96(68.57%)
2	건강·공적보험	72(51.43%)
3	생활	71(50.71%)
4	외국어 대응정보	60(42.86%)
5	긴급·재해	52(37.14%)
6	문화·이벤트·커뮤니티	49(35.00%)
7	육아	19(13.57%)
8	기타	12(8.57%)

“외국인을 위한 생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어느 정보를 이용했었는지를 답해 주셨습니다. 이용이 많은 항목으로는 “주소·호적·세금에 관한 수속”이나 “건강·공적 보험” 등 행정 수속과 관련된 항목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외국어 대응정보”가 42.86%임으로, 구정정보와 창구의 다언어화에대한 필요성이 보입니다.

3-3.토시마구의 바람직한 다문화 공생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 (최대 3항목 선택 가능)

위	항 목	응답수
1	외국인과 일본인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이벤트 등)를 만들 것	451(38.25%)
2	외국인의 생활이나 취업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할 것	400(33.93%)
3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의 제도 및 규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316(26.80%)
4	외국인이 지역 활동에 참가하게끔 촉구할 것	300(25.45%)
5	생활 정보 제공 수단을 다양화할 것 (SNS 및 ICT의 활용)	284(24.09%)
6	교류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	277(23.49%)
7	생활 리듬의 차이를 고려한 일본어 학습의 기회를 늘릴 것	240(20.36%)
8	생활 정보를 영어·중국어·한국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공할 것	232(19.68%)
9	외국인 커뮤니티를 지원할 것	203(17.22%)
10	일본 사람들이 다양한 외국어나 외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	185(15.69%)
11	일본어교실을 다니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184(15.61%)
12	외국인의 모어나 모국 문화를 전할 수 있는 기회(학교 수업, 심포지엄, 책자 등) 를 마련할 것	73(6.19%)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와 서로의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 일본의 제도 및 규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 등으로 상호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이해를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한 생활이나 취업을 위한 상담창구 설치를 선택한 분이 많았던 것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 본 속보판과 번역판은 토시마구 홈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https://www.city.toshima.lg.jp/info/index.html> 및 가쿠슈인대학 국제센터 홈페이지에서. 2021년 3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